

피아니스트 김혜진

2005년 세계 3대 국제콩쿠르 중 하나라고 일컫는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 사상 최연소 3위에 (당시 만 17세) 입상하면서 피아니스트 김혜진은 연주가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당시 부조니 국제콩쿠르의 심사 위원장이자 현재 다수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고 있는 안드레아 보나타(Andrea Bonatta)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서 성공할 수 있는 대단한 음악성과 테크닉에 감동했다' 라고 극찬하였으며 그 후 2008년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Vladimir Ashkenazy)로부터 '따뜻한 가슴을 지닌 피아니스트' 라는 호평을 받으며 다시금 그녀의 음악성을 인정 받은 바 있다.

일찍이 국내에서도 음연콩쿠르, 한세대/국민일보콩쿠르, 틴에이저콩쿠르, 이화·경향, 쇼팽콩쿠르, 대구방송콩쿠르 등을 석권한 피아니스트 김혜진은 그 외 다수 국제콩쿠르(Stainway & Sons Advanced Award Competition, 칸투 콘체르토 국제 콩쿠르, 네델란드 영피아니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 및 입상한 바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장학금재단인 DAAD(독일 학술 교류처)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 토론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입상하며 꾸준히 본인의 실력을 입증시키고 있다. 또한 Jean-Yves-Tibaudet, Yoheved Kaplinsky, Jerome Rose, Robert Macdonald, Aquiles delle Vigne, Bernd Geotzke 등 저명한 교수진들과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실력과 재능을 인정받으며 자기개발에 힘쓰고 있다. 베를린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내면의 열정과 섬세한 테크닉으로 채워진 자신의 음악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혜진은 독일의 주요 오케스트라인 슈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Schumann Philharmonic), 노트베스트 도이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Nordwestdeutsche Philharmonic), 뷔템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Wuerttemberg Symphony), 뉘른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Nuernberg Symphony)등과 협연하였으며 그 외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Praha Radio Symphony), 신포니카 디 로마(Sinfonica di Roma),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Budapest Symphony), 포르트 알레그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Orchestra Symphony Porto Alegre), 모라비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oravian Philharmonic), 마티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artinu Philharmonic)등 해외 우수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대전 시립 교향악단,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하였고 George Mester, Achim Fiedler, Ola Rudner, Tomas Hanus, Edward Topchjan, 김대진, 성시연, 윤승업 등의 지휘자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2014년도에는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교향악축제에서의 호흡을 비롯하여 서울 국제 음악제, 독일의 역사깊은 Ruhr Piano Festival 에 초청되어 리사이틀을 갖기도 하였으며 올 해 사라 장을 비롯한 저명한 아티스트들이 소속되어 있는 IMG 클래식 매니지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으며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한층 더 발돋움하여 활발한 연주활동을 해 나아가고 있다.

그 외 Napa Valley Music Festival, Cesky Krumlov Festival, Praha Spring Festival, Kotor Arts Festival 등 해외 여러 음악 페스티벌에 초청되며 독주와 협연 활동만큼이나 주변의 음악인 동료들과 실내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왕성한 연주자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그의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에서 윤영미, 김미경 교수를 사사하였고 만 17의 나이에 도독하여 현재 파비오 비디니(Fabio Bidini) 교수를 가르침 아래 독일 한스 아이슬러 국립 음대(HfM Hanns Eisler)에서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을 올 해 4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Konzerthaus Orchester Berlin)와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4번으로 협연무대를 가짐으로서 성황리에 졸업하였다.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Hr-Sinfonieorchester)과 상임지휘자 안드레스 오르즈코 에스트라다(Andreas-Orozco-Estrada)와 성공적인 데뷔무대를 마쳤으며 유럽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현재 미국으로 이주하여 Colburn School 에서 Artist Diplom 과정중에 있다. IMG artist의 소속 아티스트로서 따뜻한 진정성있는 음악을 늘 추구한다는 피아니스트 김혜진은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여김없이 자신의 음악세계를 넓혀가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